

# 수능 최저기준 폐지 한양대 31.56대 1 급등

서울 주요대학 수시접수 마감  
서울대 7.4대 1 연세대 15.68대 1

전남대·조선대 오늘 마감  
수능 마무리 전략에 만전  
개념보다 문제풀이 집중

### ■ 2016학년도 주요대 의대 경쟁률

대학명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학과명)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성균관대	논술위주	논술우수전형	의예	10	2019	201.90
중앙대	논술위주	논술전형	의학부	22	3046	138.45
경희대	논술위주	논술우수자전형	의예과	29	3719	128.24
이화여대	논술	논술전형	의예과	10	1145	114.50
고려대	논술위주	일반전형	의과대학	23	2604	113.22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2016학년도 대입(大入)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쉬운 수능'을 감안,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 뒤 마음이 들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을 우려, 끝까지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쉬운 수능>, 정시보다 수시를 노려라 =서울·연세·고려대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이 지난 12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대의 경우 2533명 모집에 1만8756명이 지원,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수시 경쟁률(7.53대 1)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다. 학과별로는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전형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교육학과(15.42대 1),

사회학과(15.15대 1) 등이 높았고 자연계열에서는 의예과(10.2대 1), 응용생물화학부(12.82대 1) 등의 경쟁률도 눈에 띄었다. 연세대는 2591명을 뽑는데 4만628명이 몰려 15.68대 1, 고려대의 경우 2989명을 모집하는 데 7만647명이 지원해 2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강대는 수시 모집 인원 1143명을 뽑는데 4만2821명이 몰려 37.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24.51대 1)보다 급등한 수시모집 경쟁률(31.56대 1)로 눈길을 끌었다. 논술전형으로 뽑는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의예과 8명 모집에 1335명이 지원, 166.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양대는 수능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호

남대 등은 15일 수시 원서 접수를 최종 마감한다. 입시 전문학원 및 광주·전남지역 진학 담당 교사들은 쉬운 수능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수시에 합격하겠다는 지원 전략을 세운 수험생들의 경향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무리 전략은?> =입시전문가들은 합격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60일도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뒷심을 발휘할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비해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형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국제고 진학부장)은 "자칫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마음이 들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학생들이 많은데, 수능 점수 미달로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처럼

### ■ 2016학년도 주요대학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 <단위:명>

학교명	모집인원	지원자수	경쟁률
서강대	1,143	42,821	37.46
한양대	2,232	70,443	31.56
경희대	1,567	46,492	29.67
성균관대	2,732	75,035	27.47
중앙대	2,697	66,033	24.48
한국외대	1,119	27,033	24.16
건국대	1,747	41,605	23.82
고려대	2,989	70,646	23.64
동국대	1,628	32,291	19.83
서울시립대	747	12,319	16.49
이화여대	1,892	31,029	16.40
서울대	2,533	18,756	7.40
연세대	2,591	40,628	15.68

시간을 정해놓고 적응력을 키우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광재 송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수능 시험을 앞둔 만큼 실제 상황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적응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념보다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한편, 모든 과목에 일정 시간을 분배해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 과목을 고루 공부하는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호남대 문화콘텐츠사업단 '장학금 풍년'

지방대 특성화 사업 선정  
5년간 매년 1억6천만원 혜택

호남대 문화콘텐츠사업단에 각종 장학금 '바람'이 불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 특성과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늘어나면서다. 14일 호남대에 따르면 신문방송학과·인터넷콘텐츠학과·문화산업경영학과로 구성된 문화콘텐츠 창의인재사업단은 올 1학기에만 신입생 45명이 25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재학생 130명도 2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호남대가 '지방대 특성화 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지난해 2학기에도 245명의 학생이 7400여만원의 장학금 '대

박'이 터졌다. 올 2학기에도 학생들에게는 7900여만원의 풍성한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다. 신문방송학과 등 3개 학과 학생들의 경우 국가·학교장학금, 각종 장학재단 장학금과 별도로 5년 동안 매년 1억6000만원의 장학금 '맛'을 보게 된다는 게 호남대측 설명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또 지난 1월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서 실습을 받는가 하면, 호주 시드니·일본 도쿄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도 실습을 받는 등 해외 연구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문화콘텐츠 창의인재사업단 관계자는 "학생 대부분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해외 선진 도시와 연구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등 사회 진출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강대, 대학생 창업 돕는다

창업보육센터 12개 동아리 선정 개발비 등 지원

동강대학교가 대학생들의 창업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과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펼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 뿐 아니라 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최 '2015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다양한 대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광주·전남에서 중기청 등과 함께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펼치는 대학은 동강대가 유일하다.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마케팅 기법 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형과 체험형 전공 등으로 세분화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동강대 설명이다.

최근에는 센터 4층 교육실에서 '2015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경진대회 2차 발표평가회'를 갖고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동강대 전기전자과를 비롯, 호텔관광과, 안경광학과, 유아교육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응급구조과, 뷰티미용과, 소풍물디자인창업과, 호텔조리영양학부 등 18개 창업동아리가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겨뤘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이날 최우수상 1팀을 비롯, 12개 팀을 선정해 아이템 개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현철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장은 "올해 처음 진행되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보성복내중·올어중 통합 공립 기숙형학교 개교

전남도교육청은 14일 보성복내중학교(교장 박정식) 개교식을 개최했다. 보성 복내중은 보성올어중과 통합해 공립 기숙형중학교로 출범하게 됐다. 복내중은 국비 217억원을 들여 본관, 기숙사, 다목적강당, 잔디운동장 등을

갖춘 '친환경 인증 학교'로 선정됐다. 복내중에는 향후 5년간 20억원 규모의 통·폐합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기숙사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돼 전교생이 기숙사비를 포함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능생 작년비 1.5% 감소 재학생 줄고 졸업생 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가 63만1184명으로 2015학년도 64만621명보다 9437명(1.5%)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의 76.4%인 48만2051명이었고 졸업생은 13만6090명(21.6%), 검정고시 등은 1만3043명(2.0%)으로 집계됐다. 졸업생은 지난해 13만1539명에서 4551명(3.5%) 늘었고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도 2015학년도 20.5%에서 21.6%로 높아졌다.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의 경우 2만1477명으로 전년도(2만1394명)보다 83명 늘어났다. 재학생 지원자가 1만7699명으로 전년도(1만7961명)보다 줄었고 졸업생 3266명(2015년 2953명), 검정고시 등은 512명(2015년 48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전체 지원자 1만8786명 중 재학생의 경우 전년도(1만7299명)보다 527명이 감소한 1만6772명이 지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캠퍼스에 울려 퍼진 '힐링' 음악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펠바이스도 도레미송 등을 연주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대학 호심관 1층 로비에서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문화예술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련한 콘서트에서 왈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펠바이스도 도레미송 등을 연주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대 제공>

# 회사 사정상 급매, 펜션·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1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옹벽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급매 - 17억 5000만원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조건 - 9월 23일까지 계약 후 10월 23일까지 완불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1년 후 대출 20억정도 가능  
조정없음